IPTV 홈 엔터테인먼트 광주서 첫선

지경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사업'

2011년 광주 200가구 시범서비스

LG데이콤과 LG전자가 최근 공동 개발한 'myLGtv 일체형 XCANVAS' 모델. IPTV 기능이 TV에 내장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LG데이콤 제공〉

'IPTV 속 드라마 장면과 같은 조명으로 바뀌는가 하면, 퇴근 시간에 맞춰 피곤을 풀어주는 LED 조명이 켜지고 동선을 파악, 방범과 가스·난방 상태까지 조절하는 '꿈' 같은 서비스'가 오는 2011년이면 광주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7일 "2011년 2월까지 18개월간 6억원을 투입해 광주시내 단독주택·아파트·학교 등 200가구를 선정, FTTH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보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66억원을 들여 1천617가구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기반조성 사업'의 하나로, 제어와 안전 등의 기본 서비스 외에도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도 보급할 계획이다.

호남권의 경우 IPTV로 여가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홈 엔터테인먼트에 주력한다.

기본적인 서비스로 ▲가스·난방·조명·원격검침서비스와 세대간 통화서비스 ▲방범·방재서비스 및 방문자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HD급 실시간 IPTV·VOD 및 지역광고 서비스 ▲IPTV와 연계한 LED 조명연출 ▲웰빙라이트테라피 등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광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사업 추진기관으로, 오픈테크놀로지, 골드텔, 위드솔루션,모메드,메크로소프트 등 지역 5개 IT 업체가 참여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 간의 호환성을 검증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홈네트워크 표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수요자가 실생활 속에서 지능형 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며 "산업계는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 신차 'VG' 주인 알아본다

밝고 부드러운 2세대 LED 조명 발산

'웰컴 라이팅' 등 첨단 신기술 적용

기아자동차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준대형 신차 'VG'(프로젝트명)에 첨단 신기술을 적용, 눈길을 끌고 있다.

기아차는 7일 "준대형 신차 'VG'에 2세대 LED 조명 방식인 '면발광 간접조명 시스템'과 차량 주인을 자동으로 감지해 조명을 밝혀주는 '웰컴 라이팅'등 첨단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면발광 간접조명 방식은 고휘도 LED와 반사판을 활용해 LED에서 발산한 빛을 안정적이고 균일하게 확산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점으로 직접 빛을 내는 기존 1세대 LED 조명의 눈부심과 심한 빛의 편차를 개선한 2세대 방식이다.

빛을 내는 단위가 점에서 선과 면으로 확대돼 다소 날카롭던 기존의 LED 조명에 비해 밝고 부드러운 빛을 발산하는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기아차는 전조등을 'ㄱ'자로 감싼 차 폭등과 후미등에 이 조명을 적용했다. 또 웰컴 라이팅 기능은 스마트 키를 소지한 사람이 접근하면 이를 감지해 접혀 있던 사이드미러가 펼쳐지고 사이드미러의 퍼들램프와 도어의 포켓램프가 켜지도록 한 것으로, 마치 자동차가 운전자를 알아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밖에 오피러스에 적용된 대형 실내등, 무드 조명, 차명이 각인된 도어 스커프 조명 등 소위 '감성조명'이 VG의 고급스러움을 살려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차량 77% 실제연비, 표시연비에 크게 미달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소비자가 실제 승용차를 운전하며 느끼는 '체감연비'가 표시연비에 비해 낮은 경우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 상품비교정보 생산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자동차 제조사 5개사, 수입차 제조사 3개사의 차량 66대를 조사한 결과, 51대(77.3%)에서 체감연비가 표시연비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체감연비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도로 운행일지에 기초해 총 주행거리와 주유량을 계산해 산출했으며, 체감연비와 표시연비의 차이가 10% 이내일 경우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간주했다.

현대차 EF쏘나타GOLD(2000년식, 배기량 1천997cc)는 표시연비가 ℓ당 12.3km인데 체감연비는 7.4km로 표시연비와 체감연비의 차이가 가장 컸다. 기아차 모닝(2004년식, 배기량 999cc)은 표시연비 15.5km, 체감연비 9.38km로 체감연비가 표시연비의 61% 수준에 그쳤다.

소시모는 시험대상 경차 5대 전부와 소형차 20대 중 16대의 체감연비가 표시연비보다 나쁘게 나왔으며 체감연비가 비슷하게 나온 차량은 대부분 배기량이 2,000cc가 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비스업 경쟁력 '뒷걸음질'

韓銀 산업현황 보고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7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CTB 지수는 미국과 영국이 1995년 0.017과 0.015에서 2007년 0.025와 0.058로 상승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0.002에서 -0.022로 하락했다.

무역에서 순수출 여부를 보여주는 무역특화지수(TSI)도 2000년 -0.04에서 2007년 -0.13으로 떨어져 이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인 미국, 영국, 일본과 반대되는 모습이었다.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역시 국내 서비스산업은 기준치 1을 밑도는 0.72로 나타나 영국(2.71), 미국(1.78) 등과 대조적이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낮은 탓에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약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생산자서비스 업종이다. 법률, 회계, 통신, 방송, 경영컨설팅, 금융 등 전문성을 갖춘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 영국, 일본은 전체 산업의 산출액에서 생산자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대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2000년 17.3%에서 2007년 16.7%로 작아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 30억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67억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가 5배 넘게 커졌다.

/연합뉴스

기업·산업·국민은행 각 1조원

中企 추석자금 특별지원

은행들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7일 중소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내달 16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임직원 상여금과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담보 또는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빌려줄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영업점장 감면 혜택 이외에도 추가로 최대 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1조 원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은 원재료 구입, 직원 급여, 상여금 등의 용도로 총 1조 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각각 5천억 원 내외를 중소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내달 7일까지 3천억 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계획이다.

앞서 광주은행도 이달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천억원의 '추석 특별 운전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10억원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한다.

하지만 숙박·주점업 등 사치 향락 업종과 부동산중개업 및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필수기자 bungy@/연합뉴스

김창남씨 광은 리더스클럽 총회장 취임

광주은행은 7일 낮 12시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우수기업 고객 모임인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회장단 이·취임식과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30여명의 회장단 및 운영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창남 남영건설 회장〈사진〉이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신임 총회장에 취임했다.

광은 리더스클럽은 또 총회 신임감사로 무진기연 조성은 사장을 선임하고 신규회원 32명에 대한 입회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김창남 신임 총회장은 "향토은행인 광주은행과 유대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현안에 더욱 애정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화재, 법인대상 인터넷 車보험 판매

삼성화재는 7일 법인의 업무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자동차보험 '마이 애니카'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법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50~100대의 자동차도 한꺼번에 보험을 설계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 삼성화재 오프라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평균 15.4% 저렴하다"며 "법인 고객들에게 인터넷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